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9일 월요일 음 12월 1일 (8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3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20%	서귀포	30%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9℃, 낮 최고기온은 7~13℃로 예상된다.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겠으며, 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다.

	해뜸 07:37 해짐 17:52	달뜸 08:01 달짐 18:12
물때	만조 11:36 23:08	간조 05:04 17:59

자외선지수 보통 |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1/8℃
모레	흐리고 비/눈	0/6℃

월드뉴스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반대 8개국 관세 예고

내달부터 10%, 6월부터 25%

그린란드에서 열린 反트럼프 시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거론하며 "2026년 2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모든 국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가, 6월 1일에는 관세가 25%로 인상된다"며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당사국인 덴마크와 이들 국가는 합동 훈련 명목으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 왔다.

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특별기고

만다린 수입 확대에도 제주감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 완 근
제주시장

만감류 재배농가를 비롯한 감귤 농가 여러분께 이 글을 드리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 역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앞으로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듣는다.

생산비는 오르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은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 걱정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과일 수입 확대는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유통 환경 변화와 자유무역 흐름 속에서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 속에서 제주 감귤 산업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다.

첫째, 제주 감귤은 이미 가격이 아닌 가치로 경쟁해 온 산업이다.

제주 감귤이란 이름엔 청정한 재배 환경, 오랜 재배 경험에서 축적된 기술, 철저한 품질관리, 무엇보다 소비자의 오랜 신뢰가 담겨 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가격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제주만의 자산이다. 감귤 산업은 주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도 생산자 조직화, 품질기준 강화, 출하조절 등 대응 역량을 축적하며 시장을 지켜왔다. 연간 17만t에 달하는 오렌지가 수입되던 시기에도 제주 감귤 산업은 무너지지 않았다.

둘째, 문제는 경쟁력의 유무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평가 구조다.

수입 만다린과 국내산 감귤이 같은 가격 경쟁의 틀 안에서 비교되는 구조 속에서는, 제주 감귤의 품질과 신뢰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농가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제는 '얼마나 싸게 팔 것인가'가 아니라, '왜 제주 감귤이어야 하는가'를 소비자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가격 중심 경쟁을 넘어 품질과 신뢰로 평가받는 구조의 전환이 감귤 산업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셋째, 제주시정은 흔들리지 않는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

제주시는 품질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산지 브랜드를 강화해 제주 감귤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 생산자 직거래 확대, 온라인 유통 활성화, 가공·체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넓히고 소득 구조를 다변화하겠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과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를 병행해 생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만다린 수입 확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환의 계기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지역 농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 가격이 아닌 품질과 신뢰, 그리고 제주만의 가치로 평가받는 감귤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주의 책임이다.

제주시정을 믿고, 조기 출하를 자제하며, 완숙된 상품을 적기에 출하해 줄 것을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열린마당

지나치는 '화북'에서 머무는 '포구'로

정 훈 교
제주도 문화협력위원회 위원

제주 원도심의 빈집 문제는 이제 통계로 확인되는 현실이다. 2024년 기준 제주도 내 빈집은 약 1160호로, 상당수가 제주시 원도심과 해안 인접 마을에 집중돼 있다.

빈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곳에 머물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동안 빈집 재생의 해법은 카페나 숙소 같은 상업 모델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수익성 중심의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고, 제주만의 삶과 시간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지점에서 화북포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화북포구는 생활 포구로, 오랜 시간 어업과 물류, 생활 이동이 겹쳐온 해안이다. 조선시대에는 송시열, 최익현, 김정희와 같은 유배 인물들이 이러한 생활 포구를 통해서도 제주 사회와 연결됐다. 조선 후기 상인 김만덕의 해상 유통망 역시 여러 생활 포구를 기반으로 작동했다. 여기에 더해 인근에는 제주4·3 당시 사라진 마을 곤을동의 흔적과 삼양동 원당봉 일대의 기항후 전설이 겹쳐 있어 이 일대가 외부 권력과 제주의 기억이 중첩된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화북포구는 지금은 체류 공간이 없어 그저 '지나치는 통로'로 남아 있다. 해법은 거창한 개발이 아니라, 방치된 빈집을 청년들의 기록 작업실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체류 동력을 만드는 데 있다. 청년들이 화북을 아카이빙하고 여행객이 포구의 시간에 스며들 때, 화북은 비로소 '목적지'가 된다. 이러한 관계 인구의 형성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늦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기제다.

밭에서 식탁까지, 소비가 농촌의 희망이 되는 길

윤 매 순
서귀포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겨울 제주 들녘은 하얀 속살을 품은 월동무로 가득하다. 제주의 화산회토와 해풍, 큰 일교차 속에서 자란 월동무는 단맛과 아삭함, 저장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한다. 그러나 지금 제주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무는 잘 자랐지만, 가격이 제자리이거나 생산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종자값과 비료값, 인건비, 운송비는 계속 오르는데, 도매시장 가격은 불안정하다. 특히 제주 농산물은 육지로 실어 나르는 물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도 농가가 손에 쥐는 수익은 훨씬 적다.

월동무는 활용도도 매우 높다. 국과 찌개, 김치, 생채, 조림, 무말랭이까지 사계절 내내 쓰인다. 특히 제주 무는 수분과 당도가 높아 국물 맛이 깊고, 오래 저장해도 품질이 유지된다.

이제는 소비자와 행정, 유통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군납, 공공기관 식당에서 제주 월동무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마트와 온라인몰에서도 '제주 월동무' 표시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월동무를 가공식품과 건강식품 원료로 활용하는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농업을 1차 생산에만 묶어두는 한, 농민의 소득은 언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소비가 바뀌면 농업이 살아난다. 올 겨울, 우리 식탁에 제주 월동무를 더 자주 올리는 것이 제주 농민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될 것이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천혜향, 황금향,카라향,레드향, 하귤,유라조생,레몬.
신품종: 달코미,우리향,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外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外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